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Cindy Cox
Dreaming a World's Edge (2022) 아시아 초연

신디 콕스
세상의 외진 곳을 꿈꾸며

Edward Elgar
Cello Concerto, op. 85, e minor

엘가
첼로 협주곡 마단조, 작품번호 85

Robert Schumann
Symphony No. 1 'Spring' op. 38,
B Flat Major

슈만
교향곡 제1번 '봄' 내림나장조, 작품번호 38

지휘
함신익

봄의
협주곡

Welcoming
Spring

04. 24^{Thu}

7:30 PM

LOTTE
CONCERT HALL



첼로
지아평
니에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문형주

부이사장

안정근

감사

김일규

이사

문형주

안정근

김일규

송백규

이경혜

이주현

김희련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2024~2025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마에스트로 Circle

하나은행

마스터즈 Circle

(주)풍산

말리 Circle

(유)세봉

(주)에프에스티

(주)티에스이

브람스 Circle

(주)디에스케이

(주)GFS

(주)골프존

브루크너 Circle

김석수

신승일

슈베르트 Circle

김창석

이경혜

윤정웅

(주)면사랑

(주)세아제강

영앤진세무법인

베토벤 Circle

엔피코리아

최영애

장원기

송백규

쇼팽 Circle

문형주

안정근

(주)다진

(주)KNW

박선주

모차르트 Circle

(주)코스모엔

김기태

서석호

신영만

전홍구

한수향

한정숙

하이든 Circle

고운영

김종혁

신갑순

이근혁

계양 수치과

이숙희

김성렬

백방미

김은주

이용돈

권영성

이미영

최상욱

김종훈

김영기

한문성

김소정

박진형

유소정

박지윤

장윤정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2014년 8월, 지휘자 함신익은 후원자, 음악가들과 더불어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리를 떠 〈함신익과 심포니 S.O.N.G〉을 창단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해온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지휘자 함신익은 KBS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함신익과 심포니 송 창단 이후에도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심포니 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광범위한 사회공헌 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10년도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의 발전을 꿈꾸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응원하는 후원자들이 함께 발맞추어 이뤄갈 것입니다.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하여 지역사회를 활기치게 한다.

VISION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관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익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VALU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 메세나 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Welcoming
Spring

봄의 협주곡



Cindy Cox
1961~



Dreaming a World's Edge 아시아 초연

신디 콕스 - 세상의 외진 곳을 꿈꾸며

Edward Elgar
1857~1934



Cello Concerto in e minor, Op. 85

엘가 - 첼로 협주곡 마단조, 작품번호 85

I. Adagio – Moderato

매우 느리게 - 보통 빠르기로

II. Lento – Allegro molto

느리게 - 매우 빠르게

III. Adagio

매우 느리게

IV. Allegro – Moderato – Allegro, ma non troppo

활기찬 빠르기로 - 보통 빠르기로 - 적절한 빠르기로

첼로 - 지아핑 니에

Intermission

Robert Schumann
1810~1856



Symphony No.1 'Spring' in B Flat Major, Op. 38

슈만 - 교향곡 제1번 '봄' 내림나장조, 작품번호 38

I. Andante un poco maestoso – Allegro molto vivace

편안한 걸음걸이로 조금 장엄하게 - 매우 빠르고 활기차게

II. Larghetto

약간 느리게

III. Scherzo: Molto vivace – Trio I: Molto più vivace-Trio II

스케르초 : 매우 생기있게 - 제 1트리오 : 조금 더 생기있게 - 제 2트리오

IV. Allegro animato e grazioso

빠르고 활기 넘치면서도 우아하게



심포니 송의 연주자들

예술감독	함신익				
바이올린	송지원*	박진형	강은실	김은지	오하은
	권도연	김수	박서령	박은진	박지윤
	선유란	엄보경	이예원	정예린	조성진
	최서현	한세날	한예진	홍예슬	황준정
비올라	서예슬	김용수	김효경	송수민	안예림
	장윤정	조선유			
첼로	박소진	권혜림	오소연	이혜인	정다인
	정혜슬	최영			
더블베이스	고부현	김가은	김태현	왕시우	윤영진
	최현유				
플루트	서지원	허지희			
피콜로	허지희				

오보에	김소정	김우영			
잉글리쉬 호른	김우영				
클라리넷	조종현	최윤석			
베이스 클라리넷	조종현				
바순	김윤지	고경호			
호른	김효정	조종현	육경진	주혜준	
트럼펫	이진규	이혜진			
트럼본	김성수	김재원	김재희		
팀파니	황영광				
타악기	이종일				
크리에이티브 팀	신현숙	고부현	구헌정	김소정	유소정
	이수민	이창훈	최아현	최윤석	



함신익은 대전시향(2001~2006)과 KBS 교향악단(2010~2012)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2014년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창단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표방했다. 기회가 필요한 젊은 유망 연주자를 단원으로 선발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가 다음 세대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에는 ‘뉴월드 심포니’라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학업을 마친 연주자들을 선발해 2년간 프로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실력을 쌓은 뒤 원하는 곳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인데 한국에도 그런 역할을 할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단원들이 최대 5년까지 활동할 수 있게 했고 함께하는 동안 되도록 심오한 레퍼토리를 다루고 한 곡을 연주하더라도 제대로 하도록 집중하여 연습하도록 합니다. 단원들은 자신의 희망을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지요.”

지휘자 함신익의 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향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에서 태동되었다 해도 과언 아니다. 가난하지만 신실했던 소년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 가며 생성된 보석 같은 사명 의식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함신익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미국 라이스대학과 이스트만 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웠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되는데 재학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고, 철학과 지휘 경험을 극대화하며 프로 지휘자로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했다. 심지어 아스펜의 여름 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거침 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30대 초반까지 함신익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였고 이후 세계 지휘콩쿨에 입상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했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예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룩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이 창단 10주년을 넘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원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동안의 10년이 고군분투孤軍奮鬪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의 시간은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시간이 될 것이다. 부지런히 실력을 키워 연주와 예술정신을 갈고 닦아서 빛을 내게 된다는 의미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지휘자 함신익은 다음 세대를 위한 연주자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위해 매분 매초를 절차탁마하고 있다.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 성장했다. 37세부터는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3년간 후학양성에 몰두했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심포니 송의 성장의 비결은 음악을 향한 열정과 진한 연습에서 거두는 실력입니다. 저는 단원들이 자신의 실력을 향상하도록 돕습니다. 단원의 실력이 제고되면 연주의 완성도는 배로 좋아집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공연에서는 모든 연주자가 열정적으로 연주하기에 모두가 특별하게 부각됩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송년연주회에서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베토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연 시간 내내 기립해 연주를 하기도 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시리즈는 연주하는 곡은 다르지만 언제나 특별함을 유지한다. 지휘자의 통찰력에 따른 연주자들의 열정이 그때 그때마다 새롭고 유니크하기 때문이다. ‘더 왕’ 프로젝트로 전국의 문화예술 소외자를 위해 연주로 공헌하는 것도 심포니 송의 자랑 중 하나다. 더 왕 프로젝트로 음향이 완벽하게 구성된 실내에서만 제 역할을 한다는 기존 오케스트라의 편견을 무너뜨리며 클래식 장벽을 낮춘 결과도 거둘 수 있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다음 10년은 지금까지의 10년보다 환경은 더 어려워지겠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마스터즈 시리즈 공연은 더욱 특별한 레퍼토리로 관객을 찾고 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도 횡수와 퀄리티 또한 제고할 것이다. 지휘자 함신익은 2025년도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예술가로서 자신의 전부를 청중에게 전달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음악이 모든 것인 함신익, 그가 심포니 송과 함께 펼칠 예술가 정신을 기대한다.

첼로 지아평 니에

CELLO
Jiapeng
Nie



프로필

중국 광저우 싱하이 음악원과 홍콩중문대학교(선전) 음악대학의 교수인 지아평 니에는 선전 첼로 협회 이사 및 선전 젊은 음악가 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2016년에는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중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첼리스트 중 한 명인 지아평 니에는 워싱턴 클래식 리뷰에서 “가볍고 달콤한 소리의 첼리스트”로 묘사되었으며, 쉐필드 국제 현악 콩쿠르에서 1등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BBC 웨일스 국립 오케스트라, 중국 국립 교향악단, 중국 NCPA 오케스트라, 함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노르딕 필하모니 로스톡 오케스트라, 뉘른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췄다.

Q 심포니 송의 첫 인상

A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선구자인 심포니 송은 전 세계의 뛰어난 음악가들을 한데 모아 젊은 아티스트와 음악 애호가들을 위한 뛰어난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전 세계의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들을 위한 놀라운 소통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음악 문화 교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멋진 음악 무대를 만들어준 함신익 지휘자 선생님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Q 중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첼리스트 중 한명으로써,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는?

A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2016년 4월 심천 콘서트홀에서 심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세계적인 첼로 마에스트로인 아르토 노라스 교수와 저명한 첼로 교수 리웨이 친과 무대에 섰을 때였어요. 저희는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의 ‘세 대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콘체르토 그로소 1번’을 연주했습니다. 이 두 거장은 저의 첼로 커리어를 이끌고 영감을 주었으며 음악, 예술, 삶에 대한 관점을 넓혀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공연이었습니다. 또한 베테랑, 중견, 젊

은 음악가들 간의 아름다운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공연이었기에 더욱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Q 이번 심포니 송과의 협연에 대한 기대와 준비

A 올해 심포니 송 마스터즈 시리즈에 합류해 국내 최고의 전문 오케스트라 및 음악가들과 함께 협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교한 선율로 깊은 감정을 전달하며 큰 사랑을 받아온 걸작인 에드워드 엘가의 첼로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인데요, 심포니 송 관객 여러분들과 이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Q 앞으로의 연주 계획

A 심포니 송과의 연주 후에는 항저우, 쑤저우, 창사 등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등 위대한 첼로 음악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저는 공연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더 많은 ‘중국의 이야기’를 나누고 국경을 초월한 예술적 이상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신디 콕스, 세상의 외진 곳을 꿈꾸며

Cindy Cox
|
Dreaming a World's Edge

저의 최근 작품들은 자연 환경과 생태계, 특히 위태롭거나 사라져가는 풍경들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 곡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ACMA)에서 관람한 사진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전시는 토머스 조슈아 쿠퍼(Thomas Joshua Cooper)의 작품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지역들을 찾아가 19세기 골동품 카메라로 각 장소에서 단 한 장의 사진만을 남겼습니다. 그의 빛나는 암석과 바다 풍경 사진들은 마치 프레임의 경계를 지우는 듯하며, 무한하고 영원한 감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중에서도 북극과 남극의 극지방을 담은 사진들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남극의 ‘Dreaming the North Polar Winter Solstice’나 ‘Uncharted Danger, Clear’ 같은 작품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진들에는 애상적인 정조 또한 깃들여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이러한 풍경들이 머지않아 사라지거나 크게 변화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음악에서도 가능한 한 다채로운 음색을 끌어내기 위해 확장된 악기 기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중에서도 섬세하고, 불안정하며, 소음적인 질감에 매료되었고, 쉽게 부서질 듯한 음색 역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곡은 네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씬 없이 연주됩니다. 특히 1악장과 4악장은 구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Dreaming a world's edge는 오케스트라 연맹(League of Orchestras)의 위촉으로 작곡되었으며, 버지니아 B. 톨민 재단(Virginia B. Toulmin Foundation)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세인트 폴 챔버 오케스트라(The Saint Paul Chamber Orchestra)를 위해 쓰인 작품으로, 이 곡을 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정합니다.

Cindy Cox | Dreaming a World's Edge

Many of my recent compositions link to natural environments and ecosystems, particularly landscapes that are fragile or endangered. This piece was inspired by a photography exhibit I recently saw at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featuring the work of Thomas Joshua Cooper. He traveled to some of the most geographically remote places on the planet and took his photos—usually with only one exposure for each location—using an antique nineteenth century camera. I was awed by how these luminous pictures of rocks and seascapes seem to dissolve the frame and create a sense of limitless eternity. Especially moving are the photos of the polar regions, with their extremity and evocativeness, such as “Dreaming the North Polar Winter Solstice” or “Uncharted Danger, Clear” in Antarctica. There’s also a kind of elegiac quality to these photos, as with climate change many of these places will soon be gone or greatly changed. In my music I like to use an expanded palette of instrumental techniques that elicit as many colors as possible. Particularly important to me are fragile, delicate, noisy and unstable timbres. The overall form of this piece is in four movements played without pause, with strong correspondences between the first and fourth movements. ‘Dreaming a world’s edge’ was commissioned by the League of Orchestras with the generous support of the Virginia B. Toulmin Foundation. It was composed for The Saint Paul Chamber Orchestra and is gratefully dedicated to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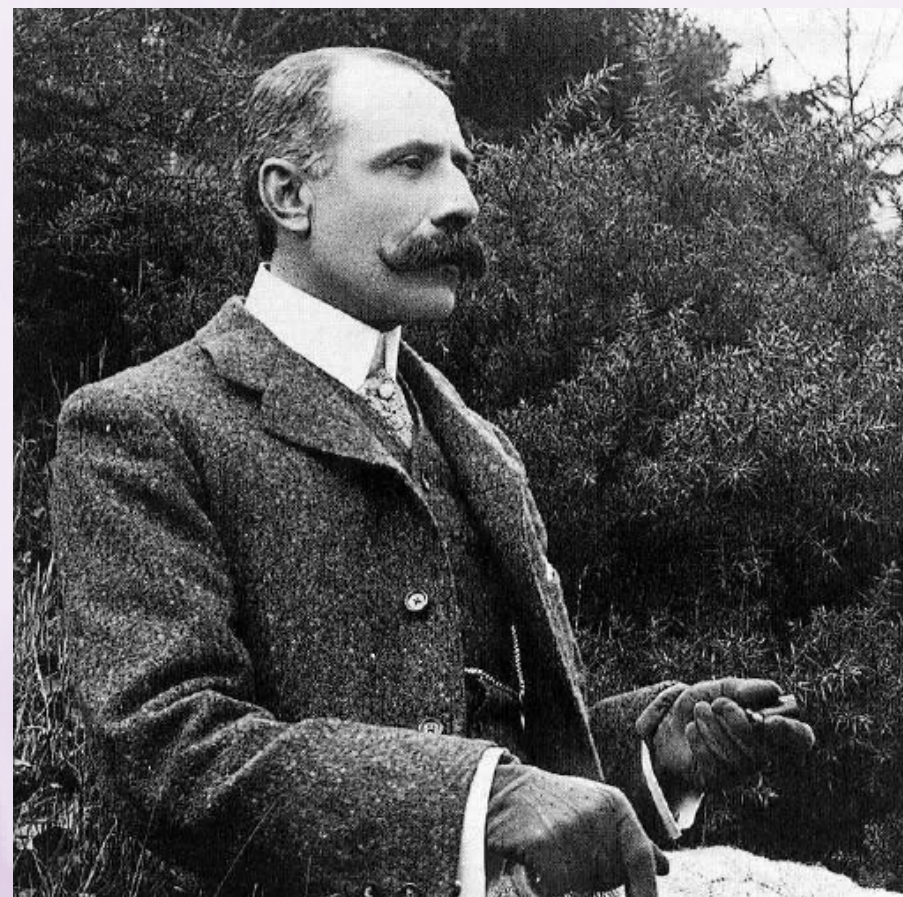
엘가 첼로 협주곡 마단조, 작품번호 85

Edward Elgar

|

Cello Concerto in e minor, Op. 85

아픔은 시간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일까. 영국을 대표하는 거장 엘가(Sir Edward William Elgar, 1857~1934)는 1919년 6월 그의 유일한 첼로 협주곡을 완성한다. 사실 그는 작곡가로서 위용을 뽐내던 그의 나이 40세 되던 1900년 초 첼로 협주곡을 의뢰받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61세의 늦은 나이에 얻은 병고(편도선 절제 수술) 후 요양 중 마침내 작품에 착수하게 된다. 퇴원 후 모든 화려했던 공직(公職)에서 은퇴하고 영국 남부 서세스(Sussex)지방의 브링크웰즈(Brinkwells)라 불리는 작은 오두막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은 제 1차 세계 대전의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도버해협을 마주하고 있었다. 전쟁의 막바지, 지칠 대로 지친 유럽의 감성은 그 끔찍한 참화에 웃음을 잃어버렸다,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큰 수술, 그리고 이미 유행에 뒤처져 대중에게서 잊혀져버린 화려했던 작곡가의 말로(末路)는 시종일관 비극적인 독백으로 이 협주곡을 채우게 만들었다. 긴 공백기 후 야심차게 발표했던 그의 실내악곡들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작업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내면의 아픔에 더욱 집중하게 된 이 협주곡의 초연은 형편없는 지휘자를 만나 크게 실패한다. 출판사들도 출판을 꺼려 결국 초연 후 2년 동안 창고에 보관되는 신세를 지게 된



Edward Elgar

|

Cello Concerto in
e minor, Op. 85

Edward Elgar (1857~1934)'s notable masterpiece Cello Concerto is a keystone of the solo cello repertoire. Elgar composed it in the aftermath of the First World War, when his music had already gone out of fashion with the concert-going public. In contrast with Elgar's earlier Violin Concerto, which is lyrical and passionate, the Cello Concerto is for the most part contemplative and elegiac. The October 1919 premiere was a disaster because Elgar and the performers had been deprived of sufficient rehearsal time. The work did not achieve wide popularity until the 1960s, when a recording by Jacqueline du Pré caught the public imagination and became a classical best-seller. Elgar only made two recordings of the work with Beatrice Harrison as soloist.

The four-movement work begins with a short cello recitativo marked with one of Elgar's favored performing directives, *Nobilmente*. This confident but dejected musical gesture, which returns briefly in the second movement and also at the end of the Concerto, contrasts sharply with the grim, long-limbed main theme of the movement proper given by violas. Resignation and bitterness seem to circulate here, with only flaming moments of hope entering the autumnal

다. 더군다나 그가 그의 생애 동안 자신의 음악보다 더 사랑했던 아내 앨리스(Caroline Alice Elgar, 1848~1920)마저 시름시름 앓다가 이 곡의 초연 후 5개월 만에 세상을 뜨게 된다. 그 충격으로 엘가는 3년간 작곡을 할 수 없게 되고 이 후 서너 편의 작품을 완성하지만 1933년 그는 더 이상 창작 의욕을 가지지 못하고 작곡을 영원히 그만두게 된다. 그는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그녀의 빈방을 서성이다 이듬해 1934년 세상을 떠난다. 병상에서 그는 친구에게 “내가 죽은 후 혹시 이 첼로 협주곡의 선율을 집 앞 언덕에서 누군가가 휘파람으로 부르는 것을 듣게 된다면 놀라지 말게. 바로 나일 테니까”라는 말을 남긴다. 슬픔을 목청껏 외쳐대며 포효하던 차이코프스키, 응어리지게 눈물로 절제하던 브람스, 자신만의 철학으로 해석하여 승화시키던 말러와는 달리 엘가는 그 슬픔의 현장에 몸소 다시 찾아가 직접 글로 하나하나 옮겨 적는 듯 구체적이다. 그러한 화자의 가슴은 오히려 차가워 보인다. 하지만 청자는 그 괴로움을 더욱 뚜렷하게 느끼게 된다.

한동안 음악계에서 잊혔던 이 귀한 작품은 1965년 첼리스트 자클린 뒤 프레(Jacqueline Mary du Pré, 1945~1987)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면서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된다. 비극은 시간을 역행하는 것인지 6년 후 자클린은 다발성 경화증을 선고받고 4년 후 몸음이 경직되어 더 이상 첼로를 연주할 수 없게 된다. 16년의 병고 후 천재 첼리스트는 안타깝게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녀의 스승 로스트로포비치(Mstislav Rostropovich, 1927~2007)는 “이 협주곡의 깊은 아픔을 뒤 프레만큼 연주해 낼 자신이 없다”며 이 곡을 연주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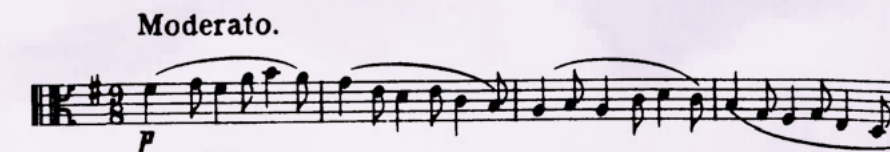
곡은 종전의 협주곡의 형식을 거부한다. 레치타티보(recitativo)식 독주가 핵심이 되어 주제를 파생(派生)해 나가고 곡의 구조를 결정한다. 전곡은 4악장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앞의 제1, 2악장과 뒤의 제3, 4악장을 묶어 휴지부(休止符) 없이 진행된다. 레치타티보는 각 악장의 첫머리를 장식할 뿐 아니라 곡 중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슬픔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1악장 Adagio - Moderato



[첼로 레치타티보 서주]

첼로 솔로의 주제가 장엄하다. 이 레치타티보 주제는 곡 전체의 동기가 되고 각 악장별 세부 주제는 이 슬픔의 주제에서 파생된다. 비올라는 제 1주제를 반주 없이 연주하고 각 악기 군이 돌아가며 반복하여 불륨을 증폭시킨다.



[1악장 제 1주제]

두 번째 주제는 E Major 상에서 아름다운 선율로 표현된다. 캐논 형태로 목관이 응답하는 것이 슬픔을 달래주는 듯 아련하다. 하지만 재현부에서 이 주제는 등장하지 않고 대신 제 1주제가 슬피 반복된 후 다음 악장으로 휴지부 없이 연결된다.



[1악장 제 2주제]

atmosphere. The first movement is linked to the second by lyrical material in the cello that begins with a pizzicato suggestion to the first movement's opening recitativo, and then goes on to a perpetual motion, virtuosic course as a Scherzo. A brief and reflective movement prefaces a finale notable for rich contrasts that include an energetic main theme, an accompanied cadenza at the end, and a return of part of the slow movement's materials as well as that first idea with which the Concerto began. But behold, after all of the deep melancholy that has filled the work, the ending has about it the kind of bravado that tells much about British fortitude, about the “chin up, carry on” strength of that people.

2악장 Lento – Allegro molto

스케르초풍의 2악장 역시 2마디의 짧은 서주 후 첼로 솔로의 레치타티보로 몰아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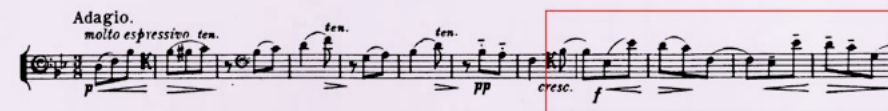


[2악장 주제]

1악장의 레치타티보 주제와 2주제의 파편이 곳곳에 회상되고 2악장 주제는 여러 모습으로 변주되며 감정을 고조시킨다. 솔로의 기량을 뽐내는 화려함보다는 오로지 독백에 기초한 음악적 전개가 파격적(破格的)이다. 짧은 유머와 경쾌함이 기본 좋지만 이는 뒤이어 나올 승화된 아픔의 아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과구처럼 보인다.

3악장 Adagio

1악장의 처절함에 비해 다소 차분하며 절제된 아리아풍의 악장이다. 첼로 솔로는 도약이 심한 선형적인 주제를 이끄는데 그의 수수께끼 변주곡(Enigma Variations) 중 9번 “님라드(Nimrod)”를 닮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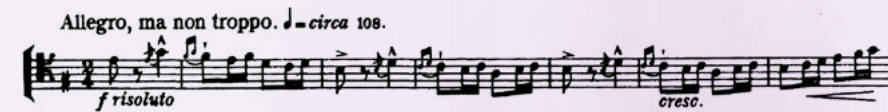


[3악장 주제]

다만 주제의 주제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으며 그 성격은 그리움이 아닌 내적 성찰(內的省察)에 보다 가깝다.

4악장 Allegro – Moderato – Allegro, ma non troppo

역동적인 론도풍의 악장이다. 주제는 자유로운 레치타티보 형태로 먼저 선보인 뒤 카덴차(Cadenza)가 이어지는데 1악장 주제에 기초하고 있다.



[4악장 주제]

싱크페이션의 반주는 그 역동성을 배가시킨다. 전반부의 흐름은 주제가 변주, 반복되고 집중되면서 마치 슬픔을 잠시 잊고 어떤 일에 몰두하는 듯 하다. 하지만 슬픔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님라드 주제를 닮은 7도 도약의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며 첼로 솔로는 슬픔을 목청껏 울부짖는다.



[4악장 부주제]

이어 3악장 주제가 재현되고 1악장 레치타티보 주제가 회상된 후 본 주제로 곡은 마무리된다.

Edward Elgar

슈만 교향곡 제 1번 ‘봄’ 내림나장조, 작품번호 38

Robert Schumann

|

Symphony No. 1 ‘Spring’ in Bb Major, Op. 38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이 교향곡 제 1번을 완성한 해는 1841년, 슈만이 31세였고 클라라(Clara Josephine Schumann, 1819~1896)와 결혼한 바로 다음 해였다. 사실 클라라의 아버지이자 슈만의 피아노 스승이었던 프리드리히 비크(Johann Gottlob Friedrich Wieck, 1785~1873)는 두 사람의 결혼에 극렬히 반대하였다. 비크는 슈만에게 음악가로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후원하여 급기야 그를 도제(徒弟, Apprenticeship)로 품어 자신의 집에 거처하도록 했던 인물이다. 그렇게 슈만은 클라라와 가까워지게 되었고, 둘은 곧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오히려 비크는 슈만을 가까이 에 두고 지내며 슈만의 정신질환(이는 청소년기부터 시작된 강박과 조울증이다)과 음주벽 습관을 알아채게 되었다. 더욱이 1832년에 슈만은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을 영구적으로 다치게 되는데 이러한 연유로 그를 사위로 받아들이기 꺼려했던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까지 이어졌고, 1840년 두 사람은 극적으로 결혼에 성공한다. 시를 사랑하던 문학청년 슈만은 결혼의 기쁨에 젖어 그 해에 사랑을 주제로 한 수많은 가곡을 작곡했다. 이 시기의 작품으로는 리더크라이스(Liederkreis, Op. 24), 미르테의 꽃(Myrthen, Op. 25), 시인의 사랑(Dichterliebe, Op. 48), 여인의 사랑과 생애(Frauen-Liebe und Leben, Op. 145) 등이 있으며, 그래서 1840년은 ‘가곡의 해’로 불린다. 이듬해인 1841년은 교향곡에 전념한 해로, ‘교향곡의 해’로 일컬어진다. 이전까지는 피아노곡과 성악곡 위주로 활동하던 슈만이 교향곡 작곡에 도전하게 된 데에는 클라라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사실 1840년부터 이미 교향곡 형식의 작품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그 진전은 더뎠다. 그러다 문득 3년 전 접했던 슈베르트의 9번 교향곡(‘대교향곡’)이 떠올랐고, 그 영감을 계기로 다시 작곡에 몰두하여 단 나흘 만에 1번 교향곡의 전체 스케치를 완성한다. 슈만 스스로도 이 빠른 작곡 과정에 놀라워하며 신에게 감사를 표할 정도였다. 초연은 슈만의 오랜 친구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 Bartholdy, 1809~1847)의 지휘로 이루어졌고, 청중과 평단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슈만은 열정적으로 작업을 이어가 그 해 안에 서곡, 스케르초와 피날레(Overture, Scherzo and Finale, Op. 52), 교향곡 4번(번호 상으로 슈만의 마지막 교향곡이지만 1841년 완성된 두 번째 교향곡이다.)까지 완성하게 된다. 1841년 2월 20일, 1번 교향곡의 완성 소식을 지휘자 타우버트(Wilhelm Taubert, 1811~1891)에게 전하며 슈만은 이렇게 썼다: “이 곡을 쓸 때 제 머릿속에는 봄을 향한 동경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관현악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 주시길 바랍니다. 곡 첫머리의 트럼펫은 마치 하늘에서 봄을 재촉하는 부름처럼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이어지는 서주에서는 자연이 푸르러지기 시작하고 나비가 날며 모든 것이 봄처럼 생기발랄해지지요. 마지막 악장은 봄과의 작별을 암시합니다.”

곡은 아돌프 뵘트거(Adolf Böttger, 1815~1870)의 “봄의 시: 그대 구름의 영(靈)이어”(Frühlingsgedicht: Du Geist der Wolke)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특히 시의 마지막 구절인 “산골짜기에서 봄이 피어오른다.” (O wende, wende deinen Lauf - Im Tal blüht der Frühling auf)에서 받은 인상이 곡의 핵심 동기가 되었고, 작품의 도입부에서 트럼펫과 호른의 팡파르로 등장한다. 이 동기는 곡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며 변형된다. 1842년 11월 23일, 슈만은 저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

Robert Schumann
|

Symphony No. 1
‘Spring’ in Bb
Major, Op. 38

Robert Schumann(1810~1856)’s First Symphony, known as the Spring Symphony, marks his first completed orchestral work. Although he had experimented with symphonic writing in the fall of 1840, shortly after marrying Clara Wieck, it wasn’t until early 1841 that he began composing his first full symphony. Up to that point, Schumann was primarily known for his piano and vocal compositions. Clara, sensing his potential, strongly encouraged him to write for orchestra. Schumann quickly drafted the symphony over four days, from January 23 to 26, 1841, and completed the orchestration by February 20. The piece was premiered under the baton of Felix Mendelssohn on March 31, 1841, in Leipzig and was warmly received. Clara noted in her diary that the nickname Spring Symphony was inspired by Adolf Böttger’s poem Frühlingsgedicht, particularly its concluding lines, which evoke the blossoming of spring in a valley. In a letter to fellow composer Wilhelm Taubert, Schumann shared that his central inspiration was the arrival of spring. He envisioned the symphony’s trumpet entrance as a divine

가 루이 슈포어(Louis Spohr, 1784~1859)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매년 찾아오는 봄에 대한 희망과 설렘 속에서 이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러나 이 곡은 봄을 단순히 묘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각 악장별로 ‘봄의 시작(Fruhlingsbeginn)’, ‘저녁(Abend)’, ‘즐거운 놀이(Frohe Gespielen)’, ‘만개하는 봄(Voller Frühling)’이라는 제목을 붙이려 했지만, 슈만은 나중에 이를 철회했다. 즉, 표면적으로 자연을 그리는 프로그램 음악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가을과 겨울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잦아 우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10월 말부터는 해가 일찍 지고 햇빛이 드물어진다. 남부 지역은 눈이 내리는 경우가 많고, 북부와 서부는 비가 집중된다. 이러한 기후적 배경 속에서 맞는 봄은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계절의 변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이나 미국 중, 동부의 봄이 꽃가루 날리는 나른함을 동반한다면, 북유럽의 봄은 생기와 희망 그 자체이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햇볕이 나면 너나 할 것 없이 밖으로 나와 일광욕을 즐긴다. 슈만이 유년기를 보낸 츠비카우(Zwickau), 청년 시절을 보낸 라이프치히(Lipzig)와 드레스덴(Dresden), 그리고 말년에 머문 뒤셀도르프(Düsseldorf)와 엔데니히(Endenich)는 모두 독일 중, 북부에 위치해 있어 그 겨울은 긴 겨울과 어두운 날씨가 일상적이었다. 마치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우리나라 사람들이 9월 중순의 시원한 산들바람에 안도하는 것처럼, 슈만에게 있어 봄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생의 빛이자 피어오르는 사랑의 상징이었을 것이다. 같은 시기를 살며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친분을 쌓은 보트거와 슈만은 봄에 대해 이러한 비슷한 정서를 공유했다. 슈만은 시에서 느낀 감동과 더불어 자신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행복의 감정을 이 곡에 담고자 했다. 물론 이 곡 안에는 어두운 정서나 긴장감, 그리고 때로는 기이한 음조가 드러나기도 한다. 이는 슈만이 청소년기부터 겪었던 강박증과 조울증의 그림자, 그리고 독일 겨울의 어두움을 반영한다. 따라서 사랑과 결혼, 그리고 봄의 생명력이 교차하는 이 밝고 따뜻한 감정은 슈만에게 더욱 깊은 울림이 되었을 것이다.

1악장 Andante un poco maestoso – Allegro molto vivace

소나타 형식의 곡으로 화려하게 울려 퍼지는 금관의 팡파르가 봄의 서막을 알린다.



[1악장 서주 주제]

두 번의 변주된 팡파르가 독일의 마지막 겨울 폭풍의 퇴장을 상징하면서 우리의 심장을 울리고 뒤이은 플루트의 부드러운 반음계 하향 선율은 숲속에서 새벽잠을 깨고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연주한다. 제시부에 이르면 웅장했던 팡파르는 토끼의 뽀빠질 같은 경쾌함으로 빨라져 악장의 제 1주제로 변모된다.



[1악장 제 1주제]

제 2주제는 목관악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색과 분위기 면에서 제 1주제와 다소 대조를 이루지만 비올라와 현악부의 재빠른 16분음표 음형이 생동감을 유지해준다.

awakening, followed by musical imagery representing the greening of nature and fluttering butterflies. The lively Allegro was meant to capture spring's vibrant energy. Interestingly, Schumann noted these interpretations came to him only after completing the work.

The poem Frühlingsgedicht, filled with exuberant praise for the season, remains widely accepted as the symphony's poetic foundation. The first movement opens with a striking trumpet fanfare symbolizing spring's arrival. This dramatic introduction leads into a spirited Allegro with a clear main theme and a more relaxed secondary theme. In the development section, Schumann exclusively works with the main theme. The initial fanfare returns to mark the recapitulation, and in a unique move, Schumann introduces a brand-new theme near the coda—an inventive touch showcasing his Romantic sensibilities.

The second movement, initially titled Evening (a title later removed), is lyrical and straightforward, resembling an extended orchestral song. Schumann, who had just completed a remarkable year of songwriting, brings his melodic gift and lush harmonies to the forefront. The movement features frequent trills—unusual in orchestral writing but common in piano music of the time, reflecting Schumann's background as a pianist. A brief trombone solo at the end, with its dark, chromatic character, adds a surprising twist, hinting at similar orchestral writing in his later works, particularly the



[1악장 제 2주제와 비올라의 꾸밈음]

발전부에서는 제 1주제의 다양한 동기들이 각각의 개성과 색채를 살리며 다면적으로 발전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주에서 등장한 팡파르 선율이 재현부의 서두가 아닌, 발전부 말미에 다시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닌 구조적인 연결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후 재현부를 통해 두 주제가 다시 회귀하고, 곧이어 코다에서는 도입부의 주제를 변형한 새로운 음형이 등장하며, 전체 1악장을 자연스럽고 응집력 있게 마무리 짓는다.

2악장 Larghetto

걸보기에는 단순한 A-B-A'의 3부분 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주제가 전체를 이끌고 있으며, 후반부 역시 처음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음 악장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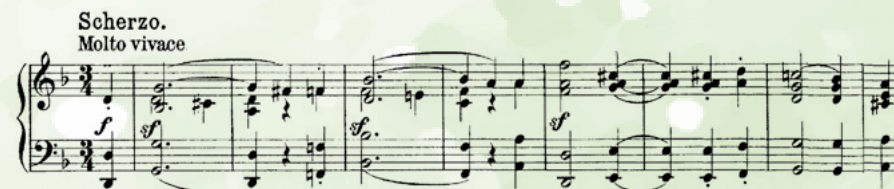


[2악장 주요 주제]

선율은 끝없이 아름답고, 풍부한 표정과 깊은 감정의 울림을 지녀 슈만의 피아노 소품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몽환적인 정서와 섬세한 서정성이 동시에 묻어난다. 코다에서는 트롬본이 G단조의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는데, 이 선율은 바로 이어지는 3악장에서 다시 등장하게 된다. 2악장은 종결 후 따로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곧바로 3악장으로 넘어가며 전체적인 흐름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가곡처럼 아름다운 이 사랑의 악장은 봄의 포근한 정취와 클라라에 대한 사랑을 중의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3악장 Scherzo: Molto vivace-Trio I: Molto più vivace-Trio II

세 번째 악장은 스케르초이며, 일반적인 3부 형식 대신 5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처럼 확장된 스케르초의 형식은 베토벤의 교향곡 4번과 7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베토벤이 트리오를 반복해 A-B-A-B-A 형식을 취한 반면, 슈만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트리오를 배치하여 A-B-A-C-A 형태에 가까운 론도풍의 구성을 창조하였다.



[3악장 스케르초 주제]

전체적으로 역동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한다. 슈만이 이 악장에 “꽃의 만개”라는 부제를 붙였듯, 음악은 만발하는 봄의 싱그러움과 에너지를 묘사한다. 첫 번째 스케르초 섹션은 거칠고 역동적인 현악기 선율이 중심을 이루며, 이어지는 제 1트리오에서는 2/4 박자로 바뀌고, D장조로 밝은 전환이 이루어

third symphony. This solo also subtly foreshadows the next movement.

The third movement follows the traditional scherzo form but includes two trios instead of the usual one. Each main section is split into two contrasting parts, providing variety without requiring close attention. The scherzo begins with an energetic, syncopated theme in a minor key, followed by a more cheerful phrase. Trio I features a lively antiphonal dance in duple meter built from just two notes, while Trio II is even more animated, driven by scale patterns and shifting accents. A peaceful coda wraps up the movement with a surprising sense of calm and a playful, Berlioz-like flourish. The final movement opens boldly with a rising scale, which becomes a key motif, paired with a graceful, dance-like theme. These ideas form the backbone of the movement. A second theme appears briefly but is not fully developed; quoted from his own piece ‘Kreisleriana’, it has a lightness reminiscent of Mendelssohn, touched with elements of the initial bold scale. In true Romantic fashion, Schumann focuses development on the first theme and bypasses the second. A charming moment arrives when a soft passage for oboe, horn, and flute signals the recapitulation, evoking the style of a Parisian opera orchestra. The movement concludes with a joyful, energetic dash to the end, radiating the happiness Schumann felt in both his personal life and artistic expression at the time.

진다. 이 트리오의 A-B-A'-B'-A'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적인 치밀함 속에서도 리듬감 넘치는 경쾌함을 잃지 않는다.

다시 스케르초가 돌아온 뒤, 제 2트리오가 등장하며 분위기를 또다시 환기시킨다. 제 2트리오의 B♭장조, 3/4 박자로 구성되며, 전체 악장의 정서에 풍성함을 더한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스케르초는 단순한 반복이 아닌 새롭게 작곡된 선율로 이뤄져 이전과는 다른 신선한 느낌을 준다. 마지막 코다에서는 다시 D장조로 전조되며, 제 1트리오의 분위기를 회상하듯 자연스럽게 마무리된다. 이러한 구성은 단순한 스케르초를 넘어서, 계절의 생동감과 생명의 기운을 음악적으로 형상화한 슈만의 시적 감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4악장 Allegro animato e grazioso

소나타 형식의 이 마지막 악장은 1악장처럼 밝고 활기찬 팡파르로 시작되며 수미상관의 구조미를 가진다. 2/2 박자의 곡으로, 매우 짧은 서주 이후 본격적으로 소나타 형식의 제시부가 전개된다. 이 서주는 플루트와 바이올린이 상행하는 선율을 통해 봄의 작별이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주요 모티브로 활용된다. 제시부는 제 1바이올린이 연주하는 유려하고 따뜻한 제 1주제로 시작되며, 부드러움 속에 역동적인 리듬이 생동감을 담아내고 있다.



[4악장 제 1주제]

이어지는 제 2주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슈만의 피아노 모음곡 (크라이슬레리아나(Kreisleriana)) 마지막 곡에서 선율을 인용한 것으로, 환상적이고 꿈결 같은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후반부는 서주에서 등장했던 상행 음형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전체 악장의 구조적 통일성을 강화한다



[4악장 제 2주제 전반부(Kresleriana)와 후반부]

제시부가 끝난 뒤 비교적 간결한 발전부로 넘어가며, 이 부분에서도 서주 및 제 2주제의 선율이 다채롭게 변형되어 나타난다. 특히 플루트와 바순이 제 1주제를 되살려내며, 악상은 다시 재현부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재현부는 제시부와 유사하게 구성되지만, 제 2주제가 이번에는 c단조와 g단조로 각각 두 차례 등장하면서 보다 풍성한 감정의 전개를 이룬다.

코다에 이르러서는 모든 악상이 하나로 수렴되며, 경쾌하고 힘 있는 분위기로 마무리된다. 이 종결부는 마치 밝은 미래를 향한 찬가처럼 느껴지는데, 정열적인 여름을 기대하며 클라라와의 사랑의 절정 등 희망적인 여운을 남긴다. 특히 플루트의 카덴차에서는 마치 새들이 지저귀는 듯한 섬세한 음형이 더해져 자연의 생명력을 환기시킨다.

전반부 엘가의 '괴로움'이 슈만의 '봄'으로 이어지면서 공존하는 오늘 연주회. 그 프로그램 구성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전화위복, 큰 시련이 있은 후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듯이 오늘 심포니 송의 연주회를 통해 각자 지나간 아픔은 귀한 교훈으로 되새기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희망을 꿈꿔보길 바란다.

글: 작곡가, 지휘자 박희정

함신익과 심포니 송
2025 마스터즈 시리즈 III
2025.03.13

〈말러 교향곡 9번〉 관객 리뷰

“과거와 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미래와 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쩌면,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에 사로잡혀, 눈앞에 펼쳐진
지금 이 순간의 각별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은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자주하셨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
진원태 변호사님 후기

“마지막에 점점 조명이 어두워지고 음악 소리는
차분하게 줄어들더라고요. 이런 페이드아웃 마무리도
처음 본 연출이라 인상 깊었습니다.
하프 소리도 좋았던 이번 공연, 매달 클래식
공연 다니고 싶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
Blogger 키워**님 후기

“유튜브 영상으로 말러교향곡 9번
여러 번 들었지만 역시 직관 감상은
오감 감각의 자극이 그 수준이 다릅니다.
휴식시간도 없이 1시간 30분 넘게
몰입해서 연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함께 몰입하는 체험도 너무 감동입니다.

”
Blogger Gloria 조**님 후기

“너무 행복했던 하루였다.
오늘도 열심히 찾아들은 콘트라베이스 소리.
매일이 행복해 난 오늘도 행복했어”
”

인스타그램 kim flip**님 후기

“국내 프로젝트 오케스트라가 이 정도의
완주를 한 것만도 대단히 고무적이란 생각을
했다. 불과 10년전만해도 국내 오케가
말러연주를? 했었을 정도로 난곡중의
난곡으로 매니아층들에게만 인기있었다.
이제 말러 그 자신이 말한대로 말러의 시대가
온 것인가. 올해는 말러 연주가 풍성하다.

”
Blogger Vio**님 후기

“소리에 둘러싸인 여기,
우리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세계는 긴 침묵으로 이어졌다.
함신익 지휘자가 아주 오래도록 허공에
손을 멈추었는데, 내가 경험한 침묵 중에
가장 긴 시간이었을 듯.
다들 조용히 기다리며 깊이 음미했다.
인간에게 속하지 않은 어떤 세계로 갈 수
있는 매개는 문학과 미술. 음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음악은 즉각적으로 그 세계로
건너갈 수 있게 해 주는 힘이 있다.

”
Blogger '나무*'님 후기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 마스터즈 시리즈 V

Wolfgang Amadeus
Mozart
Piano Concerto No. 21,
K. 467, C Major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1번 다장조,
곡번호 467

Maurice
Ravel
Le Tombeau de Couperin
라벨
쿠프랭의 무덤

Dmitri
Shostakovich
Piano Concerto No. 1,
op. 35, c minor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다단조,
작품번호 35

Alberto
Ginastera
Variaciones
Concertantes
히나스테라
교향적 변주곡

쇼스타코비치 서거
50주년,
라벨 탄생
150주년

Remembrance Ravel & Shostakovich

05. 15 Thu

7:30 PM

LOTTE
CONCERT HALL

티켓 VIP석 12만원 |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 C석 2만원 문의 심포니 송 02-549-0046

후원 하나은행 NOROO EG 주식회사 이지 PONGSAN WEATSE FST SEBONG GOLFZON DSK 화광교역(주)

SYMPHONY
SONG
SHINIK HAHN



신년음악회

Beethoven
Prometheus Overture, op. 43

Dvořák
Cello Concerto,
op. 104, b minor
김민지, cello

Beethoven
Symphony No. 5,
op. 67, c minor

Mozart Flute
Concertos

Elgar
Introduction and Allegro, op. 47

Mozart
Flute Concerto No. 1,
K. 313, G Major
조성현, flute

Mozart
Flute Concerto No. 2,
K. 314, D Major
조성현, flute

Schubert
Symphony No. 6,
'The Little', C Major



Mahler 9

Mahler
Symphony No. 9, D Major



Welcoming
Spring

Cindy Cox
Dreaming
a World's Edge (2022)
아시아 초연

Elgar
Cello Concerto, op. 85,
e minor
Jiapeng Nie, cello

Schumann
Symphony No. 1 'Spring'
op. 38, B Flat Maj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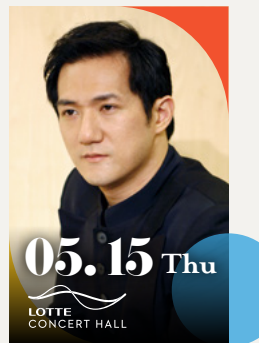
Remembrance
Ravel and
Shostakovich

Mozart
Piano Concerto No. 21,
K. 467, C Major
유영욱, piano

Ravel
Le Tombeau de Couperin

Shostakovich
Piano Concerto No. 1,
op. 35, c minor
유영욱, piano

Ginastera
Variaciones Concertantes



영웅들을 추모하며

Barber
Adagio for Strings

Mozart
Symphony No. 40,
K. 550, g minor

Mozart
Requiem, K. 626, d minor

이해원, 김선정, 이명현, 정인호,
인천시립합창단



Sibelius Special

Sibelius
Valse triste, op. 44

Sibelius
Violin Concerto, op. 47,
d minor
송지원, violin

Sibelius
Symphony No. 5, op. 82,
E Flat Major

Beethoven &
Bruckner

Beethoven
Piano Concerto No. 3,
op. 37, c minor
김규연, piano

Bruckner
Symphony No. 1, c minor



Sir Stephen
Hough Plays
Grieg and
Stephen Hough

스티븐 허프가 초연하는
스티븐 허프 피아노협주곡

Sir Stephen Hough
AGATA a Basque Fantasy
for Orchestra

Grieg
Piano Concerto, op. 16,
a minor

Sir Stephen Hough
Piano Concerto
(The World of Yesterday)
한국 초연

송년음악회

Beethoven
Symphony No. 9 in d minor,
op. 125 'Choral'

Bach
Christmas Oratorio
BWV 248, Part 1

Corelli
Concerto Grosso in g minor,
op. 6, No. 8
(Christmas Concerto)

김순영, 김선정, 이명현, 정인호,
인천시립합창단



Upcoming Concerts



05.09

The Wing - 종로구 초청

광화문 광장 - 오후 5시
무료 입장

05.15

2025 마스터즈 시리즈 V
‘쇼스타코비치 서거 50주년,
라벨 탄생 150주년’

롯데콘서트홀 - 오후 7시 30분



티켓 절찬 판매 중

06.14

The Wing - 서대문구 초청

힐스테이트 신촌 - 오후 5시
무료 입장

06.20

2025 마스터즈 시리즈 VI
‘영웅들을 추모하며’
모차르트 - 레퀴엠

롯데콘서트홀 - 오후 7시 30분



티켓 절찬 판매 중

회원권 구매 특별할인

시즌패스
Season Pass

Season Pass
Special Discount

조기구매할인혜택

※ VIP석은 100석 한정

4월 30일까지 구매시	VIP석	6회	→ 720,000원	→ 648,000원
	R석	6회	→ 600,000원	→ 540,000원
	S석	6회	→ 420,000원	→ 378,000원
	A석	6회	→ 300,000원	→ 270,000원
학생 특별 지원 할인 100석 한정 (학생 인증 필수)	A석	6회	→ 300,000원	→ 200,000원
	B석	6회	→ 180,000원	→ 100,000원

티켓 구매 요령

- ① 전화 구매 02-549-0046
- ② e-mail management@symphonysong.com
- ③ 우편 제출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홍은동,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심포니송



시즌패스

성명

연락처

E-mail

등급 ☐ R석 ☐ S석 ☐ A석

수령 방식 ☐ 현장수령(추천) ☐ 자택 또는 회사 주소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6-49104 (심포니송)

심포니 S.O.N.G

법인/개인후원 안내



구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 예우
마에스트로	3억 원 이상	· 기업연주* 6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 소식 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마스터즈	1억 원 이상	· 기업연주* 2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30매 증정	· 소장용 공연 실황 음원 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함신의 기업방문 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 광고 · 추가 구매 티켓 10%할인
말러	5,000만 원 이상	· 기업연주* 1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브람스	3,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2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12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브루크너	2,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1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8매 증정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 하이든은 제외
슈베르트	1,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1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베토벤	500만 원 이상	· 2025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쇼팽	300만 원 이상	· 2025년 시즌패스 - S석 2매 증정	
모차르트	100만 원 이상	· 2025년 시즌패스 4회 - A석 2매 증정	
하이든	1만 원 이상		



-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 후원회

수시 가입 가능
-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 ‘Melodia’ 법인 후원약정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Mobile	
	E-mail	
약정금액	※ 월 기부 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 원	
	☐ 500만 원 ☐ 100만 원 ☐ 30만 원 ☐ 10만 원 ☐ 5만 원 ☐ 3만 원 ☐ 1만 원	
일시납	일시납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동이체 은행정보	은행명	예금주 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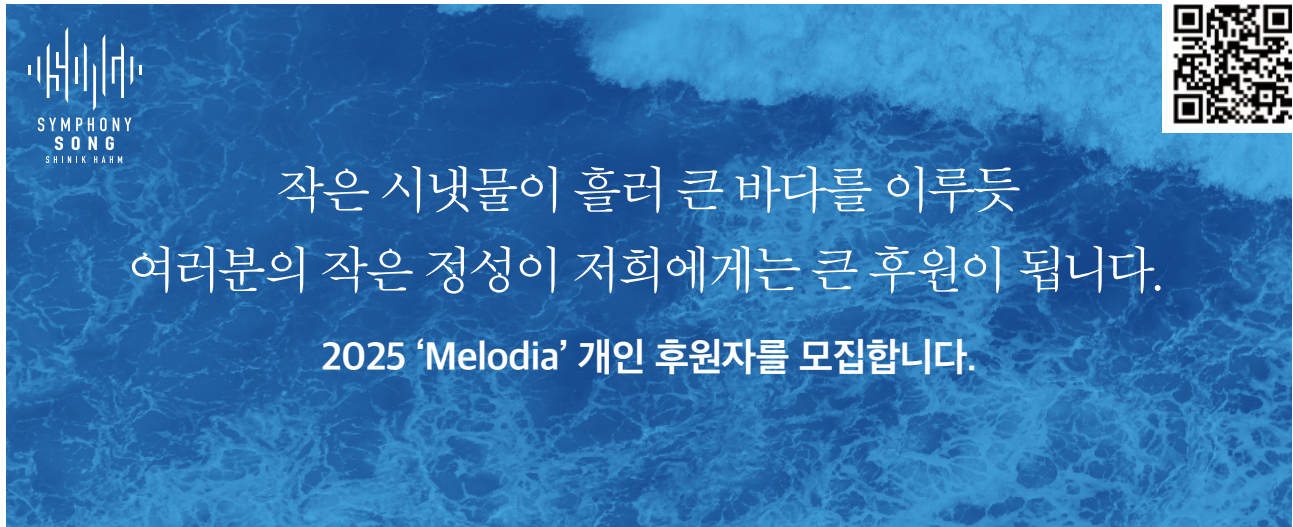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란을 채워주십시오

☐ 개인 또는 ☐ 법인	약정금액
	성명
	연락처

후원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신청 방법: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02-549-0046 이메일: management@symphonysong.com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Mobile		
	E-mail		
약정금액	※ 월 기부 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	원	
	☐ 500만 원	☐ 100만 원	☐ 30만 원 ☐ 10만 원 ☐ 5만 원 ☐ 3만 원 ☐ 1만 원
일시납	일시납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동이체 은행정보	은행명	예금주 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함신익과 심포니 송 정기후원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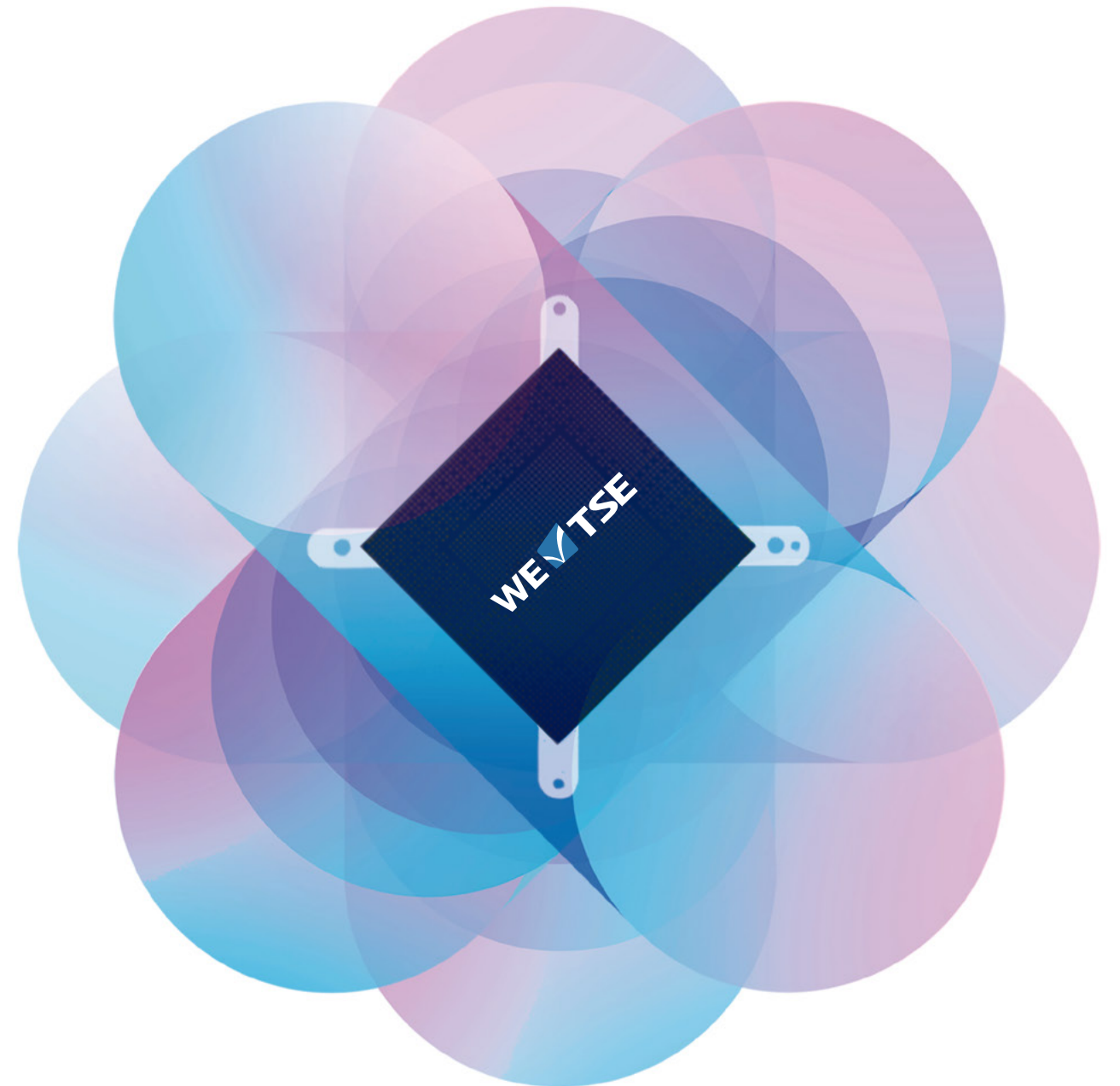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신청 방법: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02-549-0046 이메일: management@symphonysong.com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TUNE THE 5G WORLD

TSE는 초고속 반도체에 대한
TOTAL TEST SOLUTION을 제공합니다.



TSE IS A GLOBAL LEADER IN HIGH-SPEED AND HIGH-PERFORMANCE SEMICONDUCTOR TEST EQUIPMENT.
TSE IS A PREMIER SUPPLIER OF BOASTING A BROAD RANGE OF PROBE CARD FOR WAFER SORT AND TEST INTERFACE AND SOCKET SOLUTIONS FOR PACKAGE TEST WHICH IS THE MOST DEMANDING TEST SCENARIOS.

우리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 1길 189
www.tse21.com
TSE Co., Ltd.

나의
자신감,
삶에 대한
자신감

성형 MOLDING

피부 SKIN

메디스파 MEDISPA

비만 OBESITY

두피 SCALP

항노화 ANTI-AGING

지방성형 A FATTY MOLDING

성의학클리닉 A SEX CLINIC

세포재생전문클리닉 CELL REGENERATION CLINIC

L
A
H
Y
E
O
N

... FA & BIO분야 ...

글로벌종합 기술기업

이차전지장비, 디스플레이장비, 리니어시스템, 물류자동화 로봇, 산업용 및 의료용 레이저
대한민국 장비산업분야 및 바이오 보툴리눔독소제재 미래에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딩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웃·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GOLFZON NEWDIN GROUP



영 유아를 위한 수제작 토퍼 매트리스

3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탄탄한 토퍼를 제작해 드립니다.
(맞춤제작 가능)

영 유아용 KC 인증 및 모든 안전 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새로운 커피 습관 : 언더프레서

언더프레서의 다양한 홈카페 컬렉션 제품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Kurly **coupang** **NAVER** 에서 언더프레서를 검색하세요.



OFFLINE SHOP



<언더프레서 삼성점>

맛있는 커피와 함께하는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www.underpressure.co.kr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37, 1층(삼성동)
☎ 82 (0)2 2019 8990

UNDER PRESSURE

Wizard7

최적의 사이트 구축·운영·관리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기능 탑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각종 OS·DB·브라우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본기능

- | | | | |
|------------|---------|-------------|--------------|
| HTML5(웹표준) | 반응형웹 대응 | WYSIWYG 에디터 | 편집 모드/사용자 모드 |
| 강력한 권한 설정 | 파일관리 | 웹 접근성 | 다국어 지원 |
| 높은 보안 | 메뉴 관리 | 백업/복구 | 워크플로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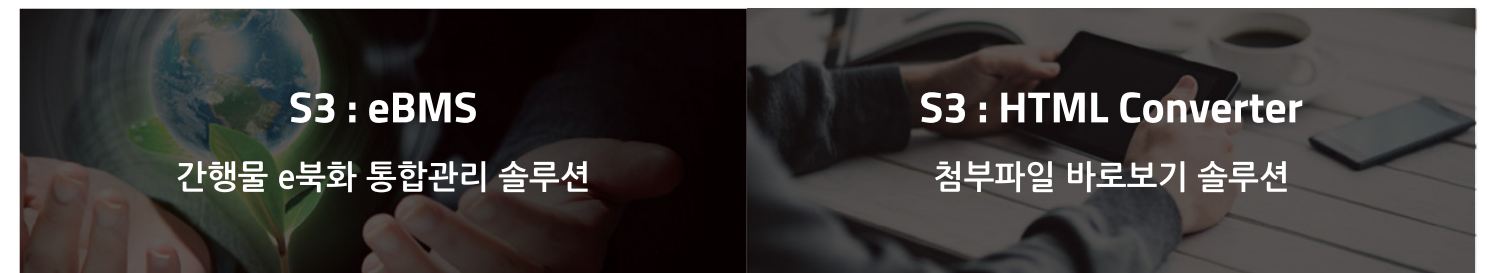
※기본 기능의 일부를 기재

모듈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자유자재로 사이트 구축

- | | | | |
|--------|----------|-------|---------|
| 게시판/뉴스 | 이미지 슬라이드 | 인물 소개 | 폼빌더 |
| 일정관리 | 규정관리 | 연혁 관리 | 회원정보 수정 |

※상기 외 모듈의 다양한 기능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를 위한 추가 솔루션



케이투웹테크(주)
www.k2web.co.kr

서울 금천구 가마산로 96 1510(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8차)
메일문의 : shlee012@k2web.co.kr / 상담시간 : 09:00 ~ 18:00

02-575-7721